

2011 새해에는

송문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맞춤훈련으로 ‘희망 일자리’ 늘릴 것”

“광주·전남의 인상을 바꿔야 합니다. 살기 좋고 인심 너그러워 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강성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광주일보를 방문한 송문헌(4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예향의 도시 광주는 은은한 멋과 목향이 나는 여유롭고 포근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그레이트 기업 유치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공모를 통해 지난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부임했다. 그는 2007년부터 3년간 광주종합고용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광주·전남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지역 노동환경과 고용사정을 잘 안다.

그는 “광주·전남은 고용환경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기업이 많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좋은 일자리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열악한 환경 덕분에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노사 스스로 조정하고 합심하는 능력과 양보·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평가했다.

송 청장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노사갈등·산업재해 줄이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지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는 등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고령자, 일·육아 병행을 원하는 여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취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송 청장은 “노사갈등과 산업재해를 줄여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갈등·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수가 감소 추세지만,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예상되고 실제 몇몇 사업장에서는 분규를 겪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대화·타협의 생산적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수노조와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적극 펼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장·고령자고용팀장·광주종합고용센터 소장·고용평등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사전=나명주기자 mjna@

‘신의 직장’ 韓銀 외부평가 사실상 백지화

한국은행이 임직원의 급여·복지 수준과 업무 공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외부평가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조희근 한은 감사기획팀장은 27일 “공정사회 관련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지난 21일까지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은 ▲채용, 계약, 인.허가, 외부대상자 선정 ▲급여 및 복리후생 ▲예산수립 및 집행 등과 관련해 공정성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됐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은이 처음으로 민간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됐으나 한은 노조는 이에 반발해 최근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 팀장은 “상황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산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를 다시 추진할지 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반발이나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적격자를 거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는 이번 외부 용역 추진이 결국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더 많다. 부총재 이하 집행간부들에게는 용역 추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마뜩잖아 하는 기류도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중 한은 감사실장은 “용역을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용역이 다분히 공정사회

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부 정책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감사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외부 평가 추진 배경은 ‘당행(한은)도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공정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이나 공개시장조각 등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이를 잘 모르는 외부 민간인이 공정의 잣대로 재 잴다는 게 과연 효과적이고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김중수 총재와 감사실

컨설팅 적격자 못찾아 재추진 여부 검토중

을 겨냥해 이날부터 본관에서 출근시간대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배경태 노조위원장은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외부 평가 추진 등으로 직원들의 자존심이 많이 다쳤다”며 “감사실이 할 일을 외부에 맡긴 직무유기 행위인 만큼 상식에 어긋난 이번 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스로 뒤흔치면 외부 평가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조 팀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한은법 제5조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외부 시각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취지였지, 정부의 코드에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올해도 백지영

앞새주 모델 재계약

보혜가 가수 백지영과 3번째 ‘앞새주’ 광고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

보혜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가수 백지영이 ‘앞새주’ 전속모델로 활동한 후 소주 주문 할 때 ‘앞술 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며 올해도 ‘백지영 효과’를 위해 3년째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보혜와 1년 계약을 체결한 백지영은 지난 2010년 4월 6개월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올 1월 1년 계약을 체결, 앞새주 모델로 3년째 재계약에 성공해 명실상부 국내 장수 소주 모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

은행권 올 인턴채용 문 좁다

은행들이 올해 인턴 채용에서 잇달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인턴 채용에 나서는 반면 상당수 은행은 인턴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계획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50명 등이며 우리은행은 채용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채용된 인턴은 우리금융 각 계열사에서 3개월~6개월간 영업점에 배치돼 현장을 체험하거나 직무연수를 받게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규 채용 때 30%가량을 청년 인턴 출신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올 상반기 청년 인턴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19일까지 모집을 마쳤다. 이번 채용

에는 3천여명이 풀려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때 채용 인원의 20%를 인턴 출신 중에 선발할 예정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에게는 서류 전형 면제혜택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턴은 2월 중순부터 5개월간 영업점에서 은행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했다. 동계 방학 기간에 맞춰 8주 동안 진행되며 인턴 기간에 본부 부서에 배치돼 해외 진출 전략과 투자금융(IB) 업무 체험, 선비배움 캠프 참가,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등을 체험하게 된다. /연합뉴스

건강이 최고...프리미엄 생수시장 급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프리미엄 생수시장’이 급성장,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외국산 생수는 10만60t, 789만 달러로 전년보다 19%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6년 생수 수입량이 5674t, 349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입량은 77.3%, 가격은 126.1%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생수가 전체 수

입액의 78.5%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7.2%, 피지 3.7%, 미국 2.5%, 독일 1.8% 등의 순이었다. 이탈리아 생수(수입량 기준)는 전년에 비해 108.6%나 급증했고, 프랑스 생수도 24.6% 증가했다. 또 피지산 생수가 작년에 처음 국내에 소개되면서 262t(29만달러) 수입해 한국이 단번에 세계에서 3번째 피지생수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작년 생수 평균수입단가는 1당 0.78달러(세전가격.한화 907원)로 연

유 평균 도입가격 1당 578원의 1.6배에 달했다.

수입가격은 노르웨이산이 1당 2.26달러로 가장 비쌌고, 이탈리아산 1.48달러, 미국산 1.32달러, 피지산 1.31달러, 프랑스산 0.88달러, 캐나다산 0.79달러 등의 순이었고 중국산은 0.39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작년 생수 수출도 1만7936t, 602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수출단가가 낮아 187만달러의 무역역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해는 이런 가방 어때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까포즈 매장에서 열린 2011 S/S 컬렉션 쇼케이스에서 모델들이 이번 시즌 루이까포즈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unchang products featuring various items like Sunchang Gochujang, Sunchang Bokbunjang, Sunchang Gimgabbe, Sunchang Gingsungbal, Sunchang Anka, and Sunchang Natribeoseot. Includes a cartoon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 for the 2011 Lunar New Year.